

투데이 칼럼

김학의 1심 무죄... 검찰개혁의 필요성 다시 절감

‘별장 성접대’와 ‘역대버물수수형’로 구속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내 개인적으로는 무죄 판결을 내린 사법부에 대한 분노보다는 ‘검찰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절감했다.

왜냐하면 사법부는 진실과 정의의 유무를 오직 검찰의 공소장에 들어있는 내용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고, 검찰은 같은 식구인 김학의가 재판부에서 무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도록 부실(?)하게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김학의가 마약과 협박에 못이긴 일반인 여성과 별장에서 성관계를 했다면 이는 사실 성접대가 아니라 특수강간에 해당하는데 그런 내용이 검찰 기소에서는 빠져 있다.

많은 죄목 중에서 가장 죄질이 낮고, 다름의 여지가 많은 뇌물과 성접대에 대한 내용만을 가지고 부실(?)하게 작성한다면 해당 공소장의 내용만을 가지고 법리적 해석으로 판단해야 하는 판사입장에서는 무죄판결이 나올 수 있다.

판사는 정의롭고 검사는 부패하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간첩위조 사건의 판결을 내려 억울한 옥살이를 시켰던 법사위원장이던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도, 사법거래



박 보 경

칼럼니스트 겸 여행작가

를 주도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모두 판사출신이다. 그저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원래는 기소조차 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고 여론에 의해 과거사위가 가동 되면서 재수사가 된 경우인데 이 와중에 범행을 주도한 윤중천의 특수강간혐의와 강간치상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버린 상황이기도 하다.

사실 현 정권이 검찰개혁 관련한 의지가 대단히 강하고, 이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이 정도로 높아지지 않았으면 아마도 기소조차 되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번 PD수첩에도 방영 되었지만 검사의 범죄라는 것이 그렇다. 구속 기소된 김학의는 ‘왜 나만 가지고 그래’라면서 매우 억울해 할 것이다.

정경심의 공소장에는 공소내용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프로필까지도 세세하게 기

록하고, 딸 조민이 고1때부터 함께 공모해서 범행을 결심 했다고 단언까지 해 가면서 조민이 제출한 모든 입시관련 문서가 위조 되었다고 적시하고 관련한 혐의를 모두 때려 부인할 수 있는 주장의 근거가 생겼다) 피해자의 분명한 진술과 증언까지 확보한 김학의는 단지 2가지 혐의의 혐목으로만, 추측하건데 부실한 공소장으로 기소한 것이다.

때문에 나는 현 상황이 여론의 관심이 이렇게 높은 사건에서 법원이 대놓고 김학의를 봐 주었다고 판단하기 보다는 애초 검찰의 부실수사와 부실기소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

각하는 것이다.

한편 지난번 LSD라는 미국의 마약 범들도 두려워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강한 마약을 밀반입 하려던 홍정욱씨의 딸은 불구속 기소가 되어서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구형했는데 그 이유는 집행유예가 5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홍정욱씨의 딸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아마 1심 5년, 2심 3년, 집행유예 5년까지 감옥가지 않을 수준으로만 정확하게 형량을 맞춰서 구형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원칙이 제대로 적용된 것이다.

이런 현실이 법을 수호해야 할 대한민국 검찰의 현재 모습이다. 그러니 어찌 검찰개혁을 외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법원도 마찬가지다. 성접대 뇌물 수수 의혹 혐의자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놀랍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회의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하지만 그럴 줄 알았다는 마음도 든다.

그렇다면 수십 번에 걸쳐 압수 수색을 하고 기소한, 그 알량한 표창장 위조혐의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을 하는지 지켜보겠다. 아울러 사법권력 전체에 대한 시민통제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시민적 양식의 수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법률기술자들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사설

3조971억원 규모 국책사업 24건 발골

지역 발전은 최고 관심사가 돼야 한다. 날마다 뛰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기대했던 만큼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지역의 낙후를 생각하면 8조 원대 예산이라도 민족을 말할 수 없다. 현 정부도 역대 전임 정부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이때 전북도는 지역 발전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겨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엔 전북도가 3조971억원 규모의 국책사업 24건을 발골한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다.

도지사와 고위 관계자들은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 전북도가 국책 사업들을 발골했어도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기까지는 많은 산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의 일만 해도 그렇다.전북은 광주와 전남에 비해 활대를 당하고 있음이 뚜렷하다. 전북 혁신도시의 연기금대학원 설립은 빨간 불인데 광주 전남 쪽의 한전공대 설립은 긍정적이었던 것이다. 제3 금융도시 지정도 새만금 공항건설도 거듭해서 미루어지고 있는데 이례서는 곤란하다. 전북도는 주요 현안들을 위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야 한다. 전북이 오래도록 광주와 전남의 들러리 신세인 데 결단코 당연시해서는 안되겠

다. 지역이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체 비교일 뿐이다. 다른 광역 시도에 비하면 매우 낙후돼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전북도는 잘 생각해야 한다. 지역 발전을 항상 중심 주제로 삼아야 한다.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고 할 수 없다. 예전에 했던 말을 또 반복하거나 발진 보폭이라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다른 지역이 보여주고 있는 것에 비하면 우리 지역의 발전은 미뽕지 않다. 3조971억원 규모의 국책사업 24건은 예산 지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밀어부쳐야 한다.

전북도가 예산 확보 총력전에 돌입했다고 밝히고 있기에 당부할 것이 있다. 도내 국책사업들이 거북이 걸음을 보이고 있는데 속도감을 보여야겠다. 증액된 예산을 확보하려면 전북도 고위 관계자들의 능력 발휘가 있어야 한다.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는 부족하다.지난 날 여러 번 지적해 왔거나 무순 일이고 진취적인 행보가 소망스럽다. 전북도는 이번엔 도민을 상대로 큰 것을 말한 만큼 목표를 위해 부단히 뛰어야 한다.

인구감소 해결은 일자리 창출이 ‘답’

전북도는 지금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 많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 중 우선 생각해야 할 것은 인구 감소의 문제이다. 지난 수년간 전국의 광역도 중에서 우리 전북의 인구 감소 폭이 제일 컸기 때문이다. 아마도 짐작컨대 올해도 역시나 그랬을 터이다.전북도는 인구의 감소와 관련하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인구 유출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속수무책으로 있어선 곤란하다.

저번에도 언급한 바 있지만 행정자치부가 발간한 ‘행정자치연보’의 내용을 보면 전북의 현실이 어떠한지 알 수 있다. 매년 전년 대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의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뚜렷하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청년 고용의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많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연초에 공표했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었는지 궁금하다. 올해도 전북 지역에는 좋은 일이 별로 없어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많았을 터이다. 정말이지 매년 반복되는 가난한 악순환의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전북의 인구 감소는 앞으로도 계속될 게 뻔하다.

인데 혁신도시 발전 쪽에만 매달린 채로 대책이 없다는 것은 많이 안 된다. 우리 전북이 늙어가고 있다는 진단은 결코 허튼 것이 아니다. 이제 전북은 고령자들의 고장이 돼버렸다.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늙은이만 늘고 있으니 지역의 현실이 딱하다. 청년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북도의 책임이 크다. 전북도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보다 분발해야 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거창한 미래 비전 제시가 아니다.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서 나가느냐가 훨씬 더 절실하다.

전북도는 인구 감소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180만 명대 선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전북도가 인구 감소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청년 고용의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많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연초에 공표했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었는지 궁금하다. 올해도 전북 지역에는 좋은 일이 별로 없어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많았을 터이다. 정말이지 매년 반복되는 가난한 악순환의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전북의 인구 감소는 앞으로도 계속될 게 뻔하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케이팝 출연진에 환호하는 베트남 팬들



26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미딩 국립경기장에서 ‘2019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Asia Artist Awards·AAA) 인 베트남’이 열려 현지 소녀팬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스페인서 마약 밀매 잠수함 적발



26일(현지시간) 스페인 북서부 폰테베데라의 앞단 항에서 스페인 민병대가 코카인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잠물 잠수함을 인양하고 있다. 스페인 당국은 마약 밀매에 사용된 잠수함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